

첫번째 이야기

# 진통제 '게보린', '타이레놀'

각종 스트레스에 휩싸이다보면 어느새 찾아오는 두통. 지끈지끈하고 콧속 쑤실 때 통증의 해결사인 진통제를 찾게 된다. 그만큼 구하기 쉽고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의사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약들이다. 국내에 출시된 수만해도 180여개에 달할 만큼 대부분의 제약사에서 생산하는 품목이지만 시장에서는 삼진제약의 '게보린'과 한국안센의 '타이레놀'이 시장의 50%를 넘게 차지하며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게보린과 타이레놀의 공통점은 아세트아미노펜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성분이 뇌 내 시상하부의 열중추에 작용해 땀을 배출하게 만들고 혈관을 이완시켜 과도하게 열이 오르는 것을 막는다. 게보린은 이 성분에 이소로필란티피린과 무수카페인을 복합된 제재로 투약 후 5~20분 이내에 빠르게 나타나는 효과를 장점으로 꼽고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게보린에 함유돼 있는

카페인도 진통작용에 상승작용을 일으켜 아세트아미노펜의 복용량을 1/3로 감소시킬 수 있어 그 부작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반면 한국안센측은 타이레놀이 오히려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성분으로 돼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더 강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타이레놀에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고 단일성분이라 약물 상호작용의 가능성이나 피린계 성분이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한국안센 관계자는 "타이레놀은 위장계통에의 자극이나 부작용이 적었고 카페인이 함유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약효와 안전성이 인기의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두 진통제의 장점은 어마어마한 생산량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게보린은 10정 포장 기준으로 하루에 약 7만갑 정도가 생산되고 있고 분으로 환산하면 1400여정 정도가 나오고 있다.

타이레놀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품과 일반의약품을 통틀어 약 3억 1000만정이 생산됐다. 이처럼 두 제품의 성분으로 인한 약효의 우수성과 차이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진통제를 안전하게 복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몸상태를 잘 알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이미 많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수치가 올라간다고 보고되고 있어 간염이나 간경변 등 간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이 성분의 진통제를 피하는 거나 의사와 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성분에 카페인 들어있는 진통제를 복용할 경우엔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위산분비가 증가되는 경향이 있어 심혈과 질환이나 위궤양을 앓고 있는 환자는 이 약을 멀리해야 한다.

## 두번째 이야기

# 우울증 치료제 푸로작

1988년 미국의 제약사 릴리가 이 약을 처음 시판했을 때(한국은 1989년) 대다수 미국 의료계와 언론은 '지긋지긋한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하는 해피 메이커(행복약)'라고 극찬했다.

그로부터 20년. 그동안 전세계 5400만 명의 환자에게 처방돼 명실상부한 우울증 치료제의 '블록버스터'로 자리매김했다. 이제는 특허권이 만료돼 카피 약이 다수 나왔고, 이 약의 약점을 보완한 신약이 여럿 등장했지만 푸로작의 인기와 유명세는 여전하다. 우울증 치료제는 흔히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SSRI)·세로토닌-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SNRI)·삼환계 우울증 치료제(TCA)로 나뉜다. 푸로작은 이 중 SSRI에 속하며 SSRI 계열 약 가운데 첫 번째 약이다.

치료 효과 면에서도 꽤 높은 평점을 받았다. 한양대병원 정신과 김석현 교수는 "이 약을 2~3개월(최소 4주) 이상 꾸준히 복용한 우울증 환자의 50%에선 증상이 거의 완벽하게 사라진다"며 "30%에선 부분적인 치료효과(일부 증상 잔존)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에선 이렇다 할 효과가 없다. 이들은 다른 우울증 치료제를 함께 복용하거나 약을 바꾸는 것이 방법이다.

요즘엔 우울증 외에 불안 장애, 공황 장애, 강박 장애, 생리전 불쾌 장애 환자에게도 푸로작이 처방된다. 스트레스로 인해 식욕이 마구 당기는 신

경성 식욕 과항진증에도 효과가 있다. 비만클리닉에서 이 약을 비만 치료제로 처방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우울증과 비만(우울증이 폭식을 부를 수 있음)을 함께 갖고 있는 환자라면 푸로작으로 1석2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 그러나 이 약을 비만 치료제로 오해해 남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푸로작 등 SSRI 계열의 우울증 치료제를 청소년 환자가 복용할 때는 상당한 주의가 요망된다. 복용 초기(1달 이내)에 자살 위험이 두세 배(약을 복용하지 않는 청소년 대비) 높아질 수 있어서다.

서울아산병원 신경정신과 홍진표 교수는 "청소년 자살과 푸로작 등 SSRI 계열 약의 인과관계는 아직 명확하게 증명되지는 않았다"며 "약을 복용하면 청소년의 충동 성향이 더 높아져 이것이 자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그래서인지 SSRI 계열 약엔 "소아·청소년의 자살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라벨이 붙어 있다. 이 약의 부작용은 메스꺼움·구토감·더부룩함·입맛 저하·변비·설사·불면·성욕 감퇴 등이다. 다행히도 이런 부작용은 약 복용을 중단하면 사라진다. 이 약은 또 카페인처럼 각성 효과가 있다. 밤에 먹으면 잠이 잘 오지 않고 정신이 말뚱말뚱해진다. 따라서 불면증 환자 외는 궁합이 맞지 않는다. 아침에 한 알 복용(식사와는 무관)하라고 권하는 것은 이례적이다.